

카지노

항공 회담이 열어줄 중국 하늘길

엔터/레저

Analyst **이효진**
02. 6098-6671
hyojinlee@meritz.co.kr

중국 측 요청에 따라 4년만에 한중항공회담 개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국 항공당국인 민항총국과 항공회담 개최할 예정이다. 성사될 경우, 양국항공회담은 2014년 이후 4년만인 셈. 노선 배분과 관련된 실무회의가 예상되는데,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내년 신공항 오픈이 예정된 베이징이 유력함

언론에 따르면, 인천~베이징 노선의 탑승률은 95%에 육박한 상황. 중국의 경우(산둥성, 허베이성 제외) 운수권을 확보해야 노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베이징 신공항은 내년 6월 준공, 9월 개항을 앞두고 있음. 개항 초 연간 4,500만명, 오는 2025년까지 7,2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것으로 추정됨. 장기 목표 연간 1억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공항이 될 전망

'중국 민용항공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 2020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7개인 민수용 대형 공항이 2020년에는 260개까지 증가함. 대형 공항만 53개가 지어진다는 것

한국 여행 시장이 경험한 바와 같이, 여행 시장의 성장 초입 국면에는 공급이 선행된 후 수요가 뒤따라 발생함. 당사가 2020년 전후로 중국 해외 여행 시장이 레벨업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임. 이러한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인접 국가 위주의 단거리 여행 성장률이 가장 뛰어남. 한국 수혜가 유력시되는 이유

중국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중국 소비재'와 '카지노'의 온도 차는 무엇에서 오는가?

대리상, 이른바 파이공이 이끄는 한국 내 對중국 소비재 시장과 달리, 카지노의 경우 지난 3년간 對중국 영업은 악화일로를 걸은 바 있음. 카지노는 물리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이 점이 최근 인바운드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이 카지노에서 두드러지게 감지되는 원인으로 파악됨

인천에서 비행 시간 기준 2시간 거리인 베이징에 연간 1억명에 달하는 대형 공항이 개항한다는 것은 물리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는 카지노 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것. 한국 외인 카지노에 대한 Overweight 의견을 유지하며 파라다이스, GKL에 대한 지속적인 비중 확대를 권고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1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1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17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효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